

##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등 '26년 제1차 민투심 통과

-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도로·환경분야 2개 사업 0.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
- 임기근 차관,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투자의 틀을 넘어서는 민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 지방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참여 확대 등이 포함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6.1.27일(화)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하여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0.2조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구미·칠곡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처리용량 575톤/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23.12.31)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의 시설로 광역화·통합화함으로써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BTO, 0.5조원)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53km의 왕복 4차선 지하 고속화도로이다. 금번 실시협약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무관청 요구\*, 법령 제·개정, 자금제조달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협약 변경 사항 후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무정차 통행료 납부체계(스마트톨링) 도입, 내부 정화시설 구축, 20→24시간 운영 등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30년간 민간투자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를 조속히 확충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앞으로는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개량하여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투자자들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대원 (044-214-3330)
		담당자	사무관	박재홍 (jwpark1202@korea.kr)
			사무관	이창준 (lcj7596@korea.kr)



## 참고 1

#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개요

### □ 사업개요

<b>사업내용</b>	구미·칠곡 지역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광역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255톤/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190톤/일, 분뇨 처리시설 30톤/일, 가축분뇨 처리시설 100톤/일, 혐기성소화설비 등		
<b>총사업비</b>	1,909억원	<b>사업주체</b>	구미시
<b>사업방식</b>	BTO-a	<b>사업기간</b>	건설 48개월, 운영 20년

### □ 조감도



